

전남도,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 개선 건의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부정기 국제선 운항도

전라남도가 여수공항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 항행안전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공항 활주로를 현재 2천 100m에서 2천800m로 연장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를 지원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 남해안남중권 관광·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활주로 길이가 전국 공항 중 두 번째로 짧고, 방위각시설(둔덕) 높이는 4.0m로 가장 높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항공기 운항 기종이 제한되고, 기상 악화 시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공항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

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이용객의 공항 이용 불안 해소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활주로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방위각 시설 개선, 종단안전구역 확보,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등 항행안전시설 개선도 요청했다.

2025년 말까지 방위각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08m에서 240m로 확대하며, 2026년까지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해 조류충돌 위험을 예방하는 등 운항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0개국, 3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도 함께



건의했다. 일본·중국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한시적 노선을 개설해 외국인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행사로서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공항을 남해안남중권 관광과 산업을 아우르는 대표공

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여수공항을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항으로 만들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백운광장 일대를 청년 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백운광장 청년 MEET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제2기 백운광장 도시재생 청년 창업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인 ‘백운UP Meetup Day’ 행사가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남구 생활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백운광장 청년 MEET 지원사업은 백운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 창업가들이 구도심에서

광주 남구, 맘으로 일군 ‘청년 창업가 결실’ 공유

내달 5일 백운광장 MEET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함께 성장하면서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 우뚝 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청년 창업가들의 맘과 눈물, 노력으로 일군 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해와 올해 1·2기 백운광장 도시재생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함께한 창업팀을 비롯해 예비 청년 창업가와 선배 창업가, 창업 전문가 등 3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기 사업에 참여한 5개 창업팀은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고급 한식 디저트를 비롯해 보리를 활용한 커피, 캘리그래피 공방, 이끼 키트 제작, 쌀가루를 활용한 다코야키 매장을 점점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부에서는 2기 사업에 참여한 창업 준비팀 5곳의 성과 발표가 이뤄지며, 2부에서는 선배 창업가 및 전문가들이 무대에

올라 창업 과정에서의 리스크 및 대응법에 대한 특별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변에 마련하는 창업기업 홍보 및 전시 부스 공간에서 상호간 자연스럽게 정보 교류를 하면서 사업 아이디어 등에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협의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그동안 청년 창업가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가들이 각오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5년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의 날 기념식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수여된 정부포상은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등 3개

북구, 맞춤형 금융 복지 정책 성과 빛났다

금융의 날 기념 정부포상 ‘포용금융’ 분야에서 대통령상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적을 보여 금융 발전에 기여한 전국의 기관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올 한 해 ‘지역맞춤형 포용금융 실현’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융안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적인 포용금융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

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디딤돌 3無(무이자·무담보·무보증) 특례보증대출’, ‘민생경제 회복 상상기금 조성’ 등 지방정부 주도의 선제적 금융지원과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복구형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금융 취약계층 편셋 지원 등은 전국적인 모범 금융 복지 사례로 꼽혔다.

/송현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시작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사업이 시민,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官) 주도도 운영한 행사 초반보다 화차가 거듭할수록 지역 상인·협동조합·화체 단지, 광주사회적경제기업, 광주세계양공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조선이공대학교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시민의 참여로 성공적 정착

동구, 지역 상인·대학·기업 등 참여... 11월 1일에도 운영

등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등 다양한 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로 금남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머물며, 소통하는 시민 광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교통 제한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의 3월~6월 행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이 자리를 잡은 5~6월의 경우 평균 14.3%가량 카드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11월에도 첫 번째 토요일인 11월 1일부터 6시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생태 전환 체험, 전시 등 부스 운영 ▲광주지방보훈청의 중고등학생장기자랑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대자보 참여자 선착순 경품 증정 등 풍성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차 없이 김치축제 즐기자” 광주시 ‘대자보 챌린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김치축제 기간인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간 ‘대자보 챌린지’를 진행한다.

‘대자보 챌린지’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으로 축제장 찾아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인증한 시민들에게는 현장에서 소정의 기념품(양말 세트·장바구니·미니 수건 등 1개)을 증정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은 당일 버스·지하철 내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으로 도전(챌린지) 성공을 인증할 수 있다. 도보 방문자는 휴대전화 걷기 앱의 당일 보행 기록(8000보 이상), 자전거 이용자는 타고 온 자전거를 제시하면 된다.

축제 기간 시청 행정동 앞에서 운영되는 ‘대자보 캠페인 부스’는 매일 부스를 방문해 도전 성공을 인증하는 선착순 300명(사흘간 9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축제 기간 교통 체증이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줄이고 쾌적한 축제 분위기를 조



성하고자 챌린지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광주시 대자보 정책을 가깝게 체감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대자보 챌린지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0월29일 0시부터 11월2일 24시까지 5일간 시청 앞 도로(시청 정문 사거리~한국은행 후문 삼거리 구간)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시내버스도 우회 운행되므로 사전에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이용하기를 권한다.

/전광훈 기자

미식관광 대표주자 양동통맥축제 30일 개막

다양한 시장먹거리와 맥주,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양동전통시장 고유의 맛과 멋을 즐기는 ‘아주 특별한 미식관광 축제’인 제3회 양동통맥축제가 오는 30일 막을 올린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양동전통시장 구6번로와 태평교 일대에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양동통맥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양동통맥(通脈), 너랑 나랑 통했잖아!’라는 주제로 전통시장과 시민이 소통하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미식문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축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30일 오후 5시 지역 예술팀의 공연으로 시작해 전통시장 내 7개 시장이 함께하는 화합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 구6번로를 포함한 시장 일부는 ‘이팅존(Eating Zone)’으로 꾸며진다. 이 구역에서는 식음 테이블 250여 개가 설치되고 통닭·닭꼬치·닭강정·홍학·건어물·떡볶이 등 60여 종의 시장 대표 먹거리를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서구는 ‘바가지요금 없는 부스’를 운영하고 식재료를 시장 안에서 자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양동통맥축제의 흥을 더할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주무대에서는 ▲지역 밴드와 예술인이 참여하는 ‘치얼스 스테



이지(CHEERS STAGE)’를 비롯해 ▲댄스인 더 마켓 ▲양동 EDM ▲상인 동아리 공연 등이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방문객 참여형 무대가 채워진다. ▲추억의 종이배행기 날리기 대회와 함께 ▲야너두? 야 너두! 양동 누구나 노래자랑이 주무대에서 진행되며 건어물 시장 사거리에서는 랜더플레이댄스가 열려 방문객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억의 사연소개 ▲시장물건 깜짝경매 ▲떡케이크 꾸미기, 어항캔들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장 내부에서도 미니버스킹을 진행해 폭넓은 공연이 방문객에게 펼쳐진다.

/박석우 기자

